

취임 한 달 홍이식 화순군수 인터뷰

“반목·갈등 접고 군민 소통·화합 이끌겠다”

홍이식(52) 화순군수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4·27 재선거에서 10여 년 동안 지역내 갈등을 초래해 온 ‘부부군수’와 ‘형제군수’의 악연의 고리를 끊었던 홍 군수는 ‘군민 화합’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고 ‘화순 대통합’을 위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홍 군수는 또 화순군을 관광·문화·의료·스포츠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국비 확보 및 기업 유치에도 전력 투구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잘사는 화순’, ‘군민 화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홍 군수를 집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소감은.

▲ 지난 4·27 재선거는 그동안 반목과 갈등이 반복됐던 화순의 과거를 청산하고 분열된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거 이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는 데 시간을 쏟았다. 화순읍 5일 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각급 기관 방문,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많은 군민들이 실수된 화순군의 명예를 되찾는 군수가 되어주길 바랐다. 취임 한 달이 지난 만큼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화순군 대통합’을 군정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앞으로



역대 군수 군정자문위원 위촉

종교 지도자 중심 협의회 구성

어떻게 군민 화합을 이뤄낼지 구체적 계획은.

▲ 군민들이 지난 4·27 재선거에서 저를 군수로 뽑아준 것은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 민심통합을 해야한다는 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합과 통합을 군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

지역민심 통합은 소통과 화합에 있다. 선거가 끝난 뒤 경합을 벌였던 일부 후보를 만났다. 임호경 전 군수를 만나 화순을 화해시키고 소통하는 데 협력해달라, 좋은 정책도 제시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다른 정당 후보들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특히 역대 군수를 군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종교협의회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적당한 시기에 군민화합 대동·한마당 친처를 마련해 모든 군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순군의 갈등과 반목은 이른바 ‘부부군수’·‘형제군수’ 두 집안간 선거로 인한 감정싸움 때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화순군 대통합을 위해서는 이 두 집안의 화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 그렇다. 두 집안간 화해와 용서가 사실상 화순군 통합에 중요하다. 두 집안이 수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군민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의 고통은 깊어져 갔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두 집안간

가교역할을 해볼 생각이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인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 찾은 선거로 공직사회도 많이 힘들었다. 몇 차례 선거 이후 인사보복 등으로 공무원 조직 내 상호 간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병폐는 자치단체장이 일부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정당을 통해서 해야한다. 기급적 공직사회 내에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정당 조직을 활성화해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공직자들이 ‘줄 서기’ 등을 하지 않게 되고, 인사 보복 등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편 가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심한 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민과 소통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 700여 명의 공직자가 7만 여명의 군민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군수에 취임한 후 군수는 공직자를 섬기고, 공직자는 군민을 섬기면서 현신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소민원실을 신설했다.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테스크포스(TF)팀이다.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특히 정치적인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가 잘못됐다면 신속하게 바로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 군민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읍·면사무소에도 많은 역할을 줄 것이다.

-그동안 집행부와 군의회 간 갈등이 많았다. 대(對) 의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장 먼저 화합과 소통을 해야 할 기관이 의회와 집행부다. 나는 화순군의회 1·2대 의원을 거쳤고, 초대 운영위원장장을 했다. 군의회가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의회 운영과

편 가르지 않는 공직사회 조성

관광·스포츠산업 메카 만들 것

의원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대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기초의회다. 주민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집행부 독주가 아닌 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함께해야 화순군이 발전할 수 있다.

-화순군의 현안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 현재 화순군은 백신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생물 의약 산업단지와 화순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해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앞으로 아시아 생물 의약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의과대학이 조속히 화순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간호대·수의대·약대 등 의생명 관련 대학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통해 도시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하니음문화스포츠센터를 활용해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화순을 명실공히 관광·문화·스포츠·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반기문 유엔 총장 재선 도전

“안보리 지지… 경쟁자 없어 연임 확실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6일(현지시간) 각·한국시각 7일 새벽) 연임 도전의사를 공식 발표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반 총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첫 임기 5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연임에 성공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반기문 총장 2기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현재 반 총장은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및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겠다는 다른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여서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외교관은 “반 총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방문해 연임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국가 가운데 반 총장의 재선에 반대한 나라는 없었다”며 “그의 재선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해 중국, 미얀마 등 일부 국가의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올해

獨 “새싹이 장출혈성 대장균 주범 유력”

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업체에서 생산된 강당콩, 암두콩, 녹두, 베이리콩, 렌즈콩, 팥, 브로콜리, 무, 상추, 호로파, 자주개자리 등 18종의 싹이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 7일까지는 추가 공자가 없는 한 새싹들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새싹은 셀러드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다. 문제의업체는 이날 폐쇄됐고 신선채소, 과일, 윷, 감자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회수됐다. 이 농장의 직원 중 2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중 1명은 EHEC 감염이 확인됐다.

린더만 장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초기 조사 결과 이 농장에서 생산된 새싹들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수시간동안 드러난 징후들도 모두 이 농장을 지

/연합뉴스

유기농 셀러드용 18종 의심

유럽을 강타한 장출혈성 대장균(EHEC) 질환의 주범으로 독일 북부에서 재배된 새싹들이 지목됐다.

독일 북부 농업부는 5일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합부르크와 하노버 사이에 있는 월센 지역의 한 유기농업체가 생산한 새싹이 오염원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싹은 셀러드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다. 문제의업체는 이날 폐쇄됐고 신선채소, 과일, 윷, 감자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회수됐다. 이 농장의 직원 중 2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중 1명은 EHEC 감염이 확인됐다.

한편 독일 보건당국은 유럽의 EHEC 사망자가 3명 늘어나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여 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트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유품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점식 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

유전일식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제2순환도로

화순

중심사

숙설마을

두암지구